

여성범죄의 성정치*

— 식민지기 성학과 성지식 그리고 여성범죄

소영현**

1. 본부살해론 재고
2. 여성범죄의 범주 구성
3. 성학으로서의 범죄학
4. 성지식의 수립과 여성범죄의 구성
5. 여성범죄의 성정치와 사회 통치술

국문초록

여성범죄라는 범주가 여성을 성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1930년대 전후로 여성에 대한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본부살해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간의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에 기반하면서도, 여성범죄가 본부살해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는 이해 방식이 만들어내는 논의의 누락 지점으로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여성의 성과 성적 욕망을 질병이자 범죄의 근원으로 여기는 인식에 입각한 여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의사와 법률가로 대표되는 전문가에 의한 여성 인식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학과의 연계성 속에서 구축되었던 성학이 범죄학과의 연관성을 누락한 형태로 소개되었던 사정을 환기하고, 식민지기 조선 사회에 성학의 소개가 미친 영향을 인쇄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문학번역원 교수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던 성지식의 대중화 경향 속에서 확인해보았다.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의 작업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변화와 그것이 야기한 효과 즉 인식적 전환의 맥락을 재구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범죄란 근대적 여성 이해가 여성의 성과 욕망을 조절하고 규율하기 위한 메커니즘 속에서 '발명'된 통치술의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여성, 범죄, 섹슈얼리티, 성적 욕망, 성학(성과학), 성지식, 계급, 젠더, 신부인과 의사)

1. 본부살해론 재고

식민지기의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그간 본부살해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성범죄는 여성의 욕망이나 결혼 제도와의 상관성 속에서 검토되었다. 1930년대 전후로 본부살해 사건을 '조혼이 낳은 조선 특유의 비극적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이 별다른 이견 없이 사회 전반에 수용되었다.¹⁾ 강력 범죄의 범죄자임에도 분류상 잔인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천적 범죄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²⁾ 본부살해는 여성 개인의 윤리적 일탈이나 조혼과 같은 사회 제도에 의한 희생의 결과물로서 다루어져왔다.³⁾ 전근대적 악습이 불러온 사회적 범죄라는 점이 지적되었

1) <朝鮮의 特殊犯罪 本夫殺害의 慘劇: 젊은 女性들이 왜 法廷에 서나? 早婚의 弊害와 罪惡(一)>, 『조선중앙일보』, 1933.10.9.; <피로 물든 統計: 年年增加의 傾向 本夫殺害方法도 各樣各種 早婚의 弊害와 罪惡(二)>, 『조선중앙일보』, 1933.10.11.

2) 김정실, <女性犯罪(十一): 본부를 살해한 여성은 원래 악독한 사람이었는가>, 『동아일보』, 1933.12.23.

3) 류승현, 「구한말-일제하 여성조혼의 실태와 조혼폐지사회운동」, 『성신사학』 제16호, 동선사학회, 1998; 이종민, 「전통·여성·범죄: 식민지 권력에 의한 여성 범죄 분석의 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 류승현,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범죄」,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김경일, 「일제하 조혼 문제에

지만,⁴⁾ 가난과 같은 조건 혹은 결혼이 강제되는 현실이나 정조에 사회적 가치가 과도하게 부여되었던 시대 분위기와 달리,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에 대한 재판에서 판결의 핵심 쟁점은 아내인 여성의 성적 욕망이었다. 가정 바깥에 놓인 '타락한' 여성과 함께 여성의 성적 욕망이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성적 욕망을 드러낸 여성이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처첩의 구분 없이 논의한다고 해도, 남편 살해 사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지만,⁵⁾ 본부살해 사건은 대개 여성의 간통 등과 연관된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41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장용경, 『식민지기 본부살해사건과 여성주체』, 『역사와문화』 제13호, 문화사학회, 2007; 최애순,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전미경,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탈유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0; 홍양희,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사학연구』 제102호, 한국사학회, 2011;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의사학』 제44호, 대한의사학회, 2013; Park, Jin-Kyung, "Husband Murder as the "Sickness" of Korea: Carceral Gynecology, Race, and Tradition in Colonial Korea, 1926~1932,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25, 2013; 최재목·김정곤, 『구도 다케키(工藤 武城)의 '의학'과 '황도유교'에 관한 고찰』, 『의사학』 제51호, 대한의사학회, 2015; 소영현, 『아만적 정열, 범죄의 과학』,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등. 본부살해 관련 연구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소영현, 『아만적 정열, 범죄의 과학』,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28-531쪽 참조.

4) 김정실, 〈本夫殺害의 社會的 考察(二)〉, 『동아일보』, 1933.12.10.; 김정실, 〈本夫殺害의 社會的 考察(三)〉, 『동아일보』, 1933.12.12.; 김정실, 〈本夫殺害의 社會的 考察(四)〉, 『동아일보』, 1933.12.13.

5) 사실 남편살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편살해 사건의 경우, 범죄자는 아내뿐 아니라 첩 혹은 첩과 그의 정부의 경우로 세분되어야 한다. 아내가 살해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내와 함께 첩이 피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령, 1920~3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첩'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정지영의 분석에만 의거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살인사건 관련 기사 유형 분석(〈표 5〉)에 의거해보면, 처에 의한 남편 살해가 미수 1건을 포함하여 3건이고 첩에 의한 남편 살해가 미수 사건을 포함한 5건인 반면, 남편에 의한 처 살해가 2건인 반면 남편에 의한 첩의 살해는 미수 4건을

중첩적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가난으로 팔려온 어린 여성에게 가해진 남편과 시집 식구의 폭력 행위 혹은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간통과 연관되어 있었고, 동시에 가정 바깥으로 표출된 여성의 성적 욕망 즉 치정, 불의의 임신, 영아살해, 방화 등의 행위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⁶⁾ 표층의 사건 이면에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논의가 덧붙여 있는 것이다.

본부살해 범죄에 대한 인식과 재판은 남편을 죽인 아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제도가 마련한 법적 논리와 사회적 인식이 마련한 법문화 사이의 간극이 지워지거나 은폐되고 있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정 내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처벌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허용 범주를 결정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⁷⁾ 이렇게 본다면, 여

포함하여 31건에 달하여, 실상 남편이 아니라 부인(첩)이 살해된 사건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 사건 보다 많은 것은, 자살 사건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자살 사건에서는 첩의 자살이 많아서, 남편이나 처의 자살의 거의 3배에 달하였다. 친밀성 범죄 연구가 종종 빠지게 되는 맹점이라 할 것이다.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권, 한국여성사학회, 2008, 105-114쪽.

6) <痴情 本夫殺害>, 『매일신보』, 1932.7.3.; <本夫殺害事件二日豫審終結>, 『매일신보』, 1932.8.7.; <不義所生嬰兒를 아궁에 너허 燒殺>, 『매일신보』, 1932.11.3.; <監視를免하고져 同寢中 本夫殺害>, 『매일신보』, 1934.8.18.; <本夫殺害한 金明淑 死刑求刑에 痛哭>, 『조선중앙일보』, 1934.11.30.; <本夫殺害한 奸夫婦에 死刑과 無期求刑>, 『조선중앙일보』, 1935.1.30.; 『愛慾의 不滿으로 일어난 醒血慘劇』, 『조선중앙일보』, 1935.7.13. 본부살해 사건 전체가 아니라 기사화된 사건에 주목한다고 할 때, 대개 가해자는 여자였지만 공범인 경우를 포함하여 남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7) 가령, 여성의 사회적 자리를 배치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의 간통은 가족·사회·국가 내의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다루어졌다. 특히 아내의 간음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다루어졌다. 조선 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기에도 여성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인과 피해자 대부분은 공동체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이거나 가족 친지 등 이웃과 지인이었다. 여성범죄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 의한 범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족과 공동체 내의 갈등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성범죄는 특정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서의 여성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으며,⁸⁾ 오히려 사회 전반에서 공유되는 여성의 성과 욕망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사건화되며 그 판정 역시 그러했다고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여성범죄를 조혼과 같은 사회 제도의 희생이라는 차원, 좀더 확장한다고 해도 제국과 피식민의 억압 구조 속에서 이중적으로 희생된 존재로서 다루는 것으로 충분한가를 질문하면서, 식민지기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를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재편과의 상관성 속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⁹⁾ 구체적으로는 식민지기 조선에서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공론화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에 소개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된 성학과 성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의학적 지식이 여성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별건곤』, 『신여성』 등의 매체를 통해 여성의 성과 성적 욕망을 질병이자 범죄의 근원으로 여기는 인식에 입각한 여성범죄에 대한

한다.

- 8)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범죄의 개별적 특성이나 통계적 경향성이 아니라 여성범죄가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정이다. 시기와 대상의 한정성은 시기와 대상의 특수성 자체로부터 나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 9) 물론 개별 범죄인에 대한 논의 자체의 무용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의 계보학적 선조는 괴물이다. 괴물의 형상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 교정 불가능한 아이들, 변태, 동성애자, 매춘부, 위험한 계급들, 빈민 대중, 팔파탈 등이 역사적 국면에서 괴물의 형상으로 호명되었다. 푸코에 의하면 법은 이들을 범죄인의 형상으로 하면서 구성된 특수한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범죄와 범죄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단일하거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규정과 형상을 갖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형성되고 구축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는 범죄의 발명을 통해 사회의 범주가 구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단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논의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파스칼레 파스퀴노, 『범죄학: 특수한 지식의 탄생』, 콜린 고든 외, 『푸코 효과』, 심성보 외 옮김, 난장, 2014, 360-362쪽.

이해가 의사와 법률가로 대표되는 전문가들이 마련한 여성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여성범죄란 근대적 여성 이해가 여성의 성과 욕망을 조절하고 규율하기 위한 메커니즘 속에서 ‘발명’된 것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부살해론이 들끓던 193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 본고의 관심사로 환언하자면 젠더적·섹슈얼티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던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지식의 이름으로 여성의 성과 욕망에 대한 이해(-장악-규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담론적 검토를 통해 여성범죄가 발명되는 인식적 전환의 풍경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2. 여성범죄의 범주 구성

1930년대 전후로 탐정소설과 범죄기사가 왕성하게 번역되고 창작되었으며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들이 탐정소설과 신문의 탐정실화, 야담류에서 ‘에로·그로·넌센스’적인 것으로 재현되었다.¹⁰⁾ 신문의 사회면과 문화면을 통해 당시 발생한 범죄 기사에 대한 소개가 유독 많이 소개되었던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¹¹⁾ 범죄 사건이 서사화된 사

10) 한민주, 『근대 과학 수사와 탐정소설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제45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53-254쪽.

11) 중요하면서도 흥미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범죄는 신문이 등장한 이후로 대중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거리 중 하나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으며, 범죄통계에 의한 반영보다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한 기사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검열과 삭제의 대상이었던 신문의 정치면과 경제면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식민지 상황에서, 상업주의 경향이 뚜렷해진 1930년대 이후로 매체의 경쟁 수단이 사회면에 집중된 경향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2호, 한국

건으로 소개되었던 것은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¹²⁾ 흥밋거리로서의 취미 독물에 대한 독자들의 요청은 당대 실제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과 결합하여 범죄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 경향을 강화하고 확장하게 되었다.

가령, 193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선인 하녀 살인사건’ 이후로, 강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다각도로 확대되었다. ‘부산 마리아 참살 사건’으로 알려진 ‘조선인 하녀 살인사건’은 여성의 성기 훼손을 포함한 엽기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일본인 부부 가정에서 하녀로 일했던 조선인 여성이 피살된 사건으로, 사건의 잔인성이 불러일으킨 공포와 함께 선정적 호기심을 은밀히 자극하는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조선인 하녀 살인사건’은 범인 검거가 쉽지 않았고 이후 범인이 검거되었지만 충분히 조사되거나 사건 종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미진함을 남겼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본과 조선 그리고 일본인 가정과 그 집 하녀라는 이중 위계적 하중 아래 놓인 조선인 여성 피해자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학회, 2001, 157-168쪽.) “과열된 신문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위와 정치적 탄압이라는 복합적인 조건” 속에서 사회면의 범죄기사가 문예면의 증면과 함께 타 신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다.(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김내성의 마인(魔人) 연구』, 『상허학보』 제40호, 상허학회, 2014, 86쪽.)

- 12) 특히 육하원칙에 의한 사건의 소개보다는 사건을 둘러싼 추정과 해석 그리고 상상력이 덧붙여진 이야기 형식의 보도 방식은 사건 밖의 인물이 범죄 사건의 의문을 풀어가는 추리소설의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되었던 서사화된 사건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소재로 차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식민지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일종의 오락물로서 기능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탐정의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독자들이 범죄사건 관련 기사를 취미 독물로서 읽게 만들고, 피해자에 대한 독자의 연민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식민지적 모순을 환기하게 될 사회모순에 독자의 시선이 가닿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은아, 『1930년대의 살인사건 보도양상 연구-‘마리아 참살사건’과 ‘양주 나무장사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4쪽.

1931년 사건 발생 이후 판결이 마무리되는 1934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해결 과정이나 관련 판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여성이나 여성 관련한 범죄 이야기를 국가적·계급적·젠더적 위계 구도의 모순적 면모를 가시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았지만, ‘조선인 하녀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조혼이 원인이 된 본부살해 사건 관련 기사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뚜렷하게 증가한 경향이 나 범죄 특히 여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던 시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¹³⁾ 미수에 그친 사건들에 대한 소개나 해외 사례에 대한 소개도 적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¹⁴⁾ 본부살해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유포되어 있었는데, “진기한 예로살인”¹⁵⁾으로서 1920년대 이후로 인쇄 매체에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던 본부살해 사건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과학적 원인 분석에 대한 기사와 함께 경향적 현상으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¹⁶⁾ 범죄 기사가 아니더라도,

13) 본부살해 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은 소영현, 「식민지기 조선 촌부의 비/가시화」, 『동방학지』 제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1-24쪽 참조.

14) 〈자는 입에 毒을 너히 本夫殺害타 發覺: 너자는 잡히고 간부는 도주〉, 『매일신보』, 1928.7.29.; 〈四角關係의 痴情劇 本부 독살범의 발바운 길〉, 『매일신보』, 1928.8.20.; 〈十六歲 少婦가 本夫殺害 未遂〉, 『매일신보』, 1934.10.14.; 〈本夫殺害未遂犯에 五年以下役求刑 淸津地方法院에서〉, 『조선중앙일보』, 1934.12.6.; 〈外聞片片〉, 『매일신보』, 1931.3.10.; 〈雅三俗四〉, 『동아일보』, 1929.10.31.; 〈十七歲少婦가 男便殺害陰謀〉, 『동아일보』, 1931.8.22.; 〈男便毒殺하려다 未遂코 逃走〉, 『동아일보』, 1932.4.23.; 〈十五歲少婦가 本夫殺害未遂〉, 『동아일보』, 1935.12.28.

15) 〈乞人間에愛慾葛藤 本부살해코탈처 乞人間에愛慾葛藤 本夫殺害코奪妻〉, 『매일신보』, 1933.11.23.

16) “一方으로는 自由主義에서 演繹된 個人中心的 新倫理制度의 提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社會改造 思想에 立脚한 徹底한 實利的 倫理感을 現下의 社會에서 實行해보려는 大膽한 主張도 없지 아니한데다가 世紀末의 享樂主義의 安逸이 一世를 風靡하려 하며 他方으로는 傳統的 貞操觀念과 大家族制度, 早婚의 風俗 등은 그대로 殘存하여 便한 것을 조차 이것을 따르기도 하고 저것을 強制하려고도 하니 이에 나날이 紙上에 報道되는 喜悲劇이 演出되고 있다. 無理解한 長上의 態度로 因하여 苦悶의 끝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판결과 공판에 대한 소개도 대개 잔혹한 사건에 집중된 편이었다. 가령, 1931년 경성지방법원 새해 첫 공판에 대한 소개 기사는 절도죄와 함께 10년 만에 범죄가 탄로 난 남편 살해 사건과 젊은 남자와 통정하여 낳은 아이를 죽인 사건이었다.¹⁷⁾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던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머슴 살인사건’이 세간의 주목받은 것도 젊은 여성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 속에서였다. ‘벌을 달게 받겠소’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했던 ‘머슴 살인사건’은 여성이 범인인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가운데에서도 드문 사례에 속하였다.¹⁸⁾ ‘머슴 살인사건’은 강원도 평강 군서면 정산리 김기달의 아내 박재(25세)가 7년 전 결혼을 하여 자녀 낳매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던 중, 그 집 머슴 손칠룡(30세)을 살해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자수 한 사건이다. 피해자 손칠룡이 박재와 통정을 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자, 모함의 말에 분개

에 重罪를 犯하며 自殺을 圖하는 婦女가 얼마며 男性의 足下에 蹂躪되어도 呼訴無處인 女子는 얼마인가. 封建道德의 犧牲者가 主로 女子인 것을 잊을 수 없다. 스스로 이를 脫出코자하나 社會의 制裁는 法律의 그것보다도 더욱 苛酷한 것으로 嬰兒殺害의 犯罪가 많은 것도 이 現想의 一 表現일 것이다.”(〈封建遺習과朝鮮〉, 『동아일보』, 1932.5.22., 1면.); 〈犯罪史上 初有의 獨婦 生理的 構造 研究〉 『동아일보』, 1935.2.1.; 〈朝鮮女子의 犯罪와 早婚〉, 『동아일보』, 1937.7.10.

17) 이후 공판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연일 기사화되었다. 〈劈頭의 斷罪相 에로와 구로〉, 『매일신보』, 1931.1.9.; 〈殘虐兩個白骨事件 毛骨悚然한 公判〉, 『매일신보』, 1931.2.11.; 〈本夫殺害犯人等 無期와 十二年〉, 『매일신보』, 1931.2.18.; 〈封建遺習과朝鮮〉, 『동아일보』, 1932.5.22.

18) 따지자면, ‘머슴 살인사건’은 여성이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다. 살인과 폭력 사건에서 여성은 대개 피해자로서 다루어지며, 실제 통계학 상으로도 범죄와의 관련 속에서 여성 대부분은 피해자로서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여성이 살인과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머슴 살인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여성범죄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하이덴슨, 『여성과 범죄』, 이영란 옮김, 나남출판, 1994; 메다 체스니 린드·리사 파스코, 『여성과 범죄』, 한민경·김세령·최재훈·홍세은 옮김, 박영사, 2021.

한 그녀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도끼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임신 중이었던 피고인 박재는 감옥에서 출산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재판장에 서서 범행 당시 전후 정경을 대답하였다고 한다.¹⁹⁾

‘머슴 살인사건’에서 사건의 특이정보다 주목할 것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언도된 징역 15년의 판결이 복심(2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미모의 얼굴에 음전한 여성이었으며 범죄 후 곧바로 자수하여 자백했다거나 그녀의 남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서른이 되도록 총각으로 살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빈곤한 처지에 놓인 욕구불만의 남성이었다는 사실들이 사건 발생의 주변적 요인으로서 언급되고 있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보다 그녀의 살인이 피해자가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에 기인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조를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한 그녀의 결백 주장이 결국 그녀의 살인의 죄값을 상당 부분 경감시키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²¹⁾ 판결에서 그녀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명예나 평판이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며,²²⁾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가장 대중적 이데올로기인 정조 보호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한 판결에서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²³⁾ “여자로

19) <謀陷에 憤慨해 머슴을 斫殺>, 『조선일보』, 1934.4.26.

20) <法庭에 선 女人 ‘벌은 달게 밧겏소’ 억울한 누명 벗고져 독기로 살인한 여자(一)>, 『조선일보』, 1934.5.10.; <法定에 선 女人 ‘벌은 달게 밧겏소’ 억울한 누명 벗고져 독기로 살인한 여자(二)>, 『조선일보』, 1934.5.11.; <法庭에 선 女人 ‘벌은 달게 밧겏소’ 억울한 누명 벗고져 독기로 살인한 여자(三)>, 『조선일보』, 1934.5.12.

21) <貞操의 名譽 爲한 殺人에 人情判決>, 『조선일보』, 1934.6.12.

22) 피테르 스피렌부르크, 『살인의 역사』, 홍선영 옮김, 개마고원, 2011, 78쪽.

23) 박소현, 『죄와 벌—근대중국의 법률문화 개관』,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67-125쪽. 그림과 이야기로 근대 초기 중국의 법률문화를 재현한 『점석재화

서는 생명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는 젊은 아내의 정조에 관한”²⁴⁾ 모함에 살인으로 저항한 사건이라거나 “재판관의 동정 있는 판결”에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여자로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놓고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사정”²⁵⁾이 있었다는 식의 기사 서술 역시 여성의 정조가 여성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법률적 판정 기준과 당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합의했던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게 한다.

‘머슴 살인사건’과 그 판결은 여성범죄의 이해에서 젠더적·섹슈얼리티적 인식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한다. 당대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 여성에게 할당된 젠더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채로는 여성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성의 명예 실추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통해 여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젠더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언급했지만, 좀더 세밀하게 다루어 보자면 그것은 젠더적 역할이나 정상성에 입각한 섹슈얼리티 구성 차원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젠더적 성격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성차(sex)라는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⁶⁾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인

보』를 대상으로 법률과 그 시행 방식뿐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사법체계의 구조와 시행을 둘러싼 사고방식과 태도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점석재화보』에 소개된 범죄 이야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빈번하게 범죄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타락한’ 여성을 종종 등장시키면서 전환의 시기에 나타난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체제의 위험과 새로운 도전이 여성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겠다.

24) 〈謀陷에 憤慨해 머슴을 斫殺〉, 『조선일보』, 1934.4.26.

25) 〈法庭에 선 女人 ‘별은 달게 밧겏소’ 역울한 누명 벗고져 독기로 살인한 여자(-)〉, 『조선일보』, 1934.5.10.

26) 1920년대 후반의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자살자의 증가 추세를 두고 치정, 질투, 사통으로 얻은 임신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는 한편, 남성 자살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신착란이나 생활 곤란과 함께 성욕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던 『별건곤』의 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당대의 성욕에 대한 이해는 성별 차이라

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정 시기의 상태나 행위뿐 아니라 여성의 삶 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다.

‘불임’ 혹은 ‘아이가 없는’ 같은 용어가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타의 요소들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는 낙태, 자살,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등 빈곤하고 언제나 법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무거운 선택들에 직면해왔다.²⁷⁾ 임신하고 출산하는 존재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선택들이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는 행위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여성 범죄자의 범주도 구성된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 성욕이 옹지 못한 성관계를 이끌고 그 결과인 임신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이러한 판단은 여성범죄가 생물학적인 차원의 여성성에 대한 논의에서 젠더적 차원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까지 두루 결부되어 범주적 구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젠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범주 구성 과정은 여성범죄의 범주 구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때 좀더 거시적 차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성범죄의 범주가 사회구성과의 상관성 속에서 구축되고 재구축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말

는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해서 시작되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의 자살은 해소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소된 성욕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다루어졌다. 鄭錫泰, 〈性慾의 生理와 心理－男女兩性の 性慾苦〉, 『별건곤』 제19호, 1929, 66쪽.

27) 에이드리언 리치, 『여성으로 태어남에 대하여: 경험과 제도로서 모성』,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주혜 옮김, 바다출판사, 2020, 128-129쪽.

해주는 것이다.²⁸⁾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를 성(sex) - 젠더 체계에 기반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범죄가 대개 경범죄의 성격을 띠는 반면, 여성 살인자의 경우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에 동원되거나 고용계약 형태의 하인이 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였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극소수의 여성만이 폭력으로 대항한다는 기이한 사실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범죄 범주에 사소한 재산상의 절도나 성도덕 위반 행위 이외의 중대한 재산범죄나 폭력범죄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범죄가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거의 겹치거나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방증이라고 해야 한다.²⁹⁾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특성은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여성범죄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³⁰⁾

이는 여성범죄를 사회 전체 수준에서의 성역할 수행이라는 맥락에서

28) 물론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범죄론은 좀더 한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여성범죄는 범죄 구성요건 상 행위주체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범죄의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를 총칭한다. 문제는 여성범죄가 범죄 일반의 성격과 속성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생겨난다.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그 범주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범죄와 여성범죄란 어떤 관련성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범죄란 여성의 범죄인가, 여성에 대한 범죄인가. 여성범죄 연구는 여성-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가,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빠르게 세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강조컨대 여성범죄의 범주가 사회구성과의 상관성 속에서 구축되고 재구축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29) 메다 체스니 린드·리사 파스코, 『여성과 범죄』, 한민경·김세령·최재훈·홍세은 옮김, 박영사, 2021, 129-135쪽.

30) 한남제·이춘옥, 『한국의 여성범죄: 여성적인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8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2, 87-105쪽; 진정주,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8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333-359쪽.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범죄는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나 지위와 연결해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서, 성·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여성범죄의 범주를 구성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여성범죄의 범주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환기해볼 때,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성과 성적 욕망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내는 인식적 전환의 장면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하며, 여성범죄 연구는 범죄의 사건성이나 범죄인의 자질에 대한 연구로 환원하는 작업과는 별개의 메타적·담론적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성학으로서의 범죄학

“조선에 있어서 여성범죄(女性犯罪)로 특수성을 갖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본부살해와 과부살아가 곧 그것입니다.”³¹⁾ 신문 매체를 통해 본부살해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따지자면, 조선의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여성범죄와 본부살해를 검토한 산부인과 의사이자 재조일본인 지식인 구도 다케키(工藤武城)의 연구(『朝鮮特有の犯罪:朝鮮婦人の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1-7)』, 『朝鮮』 1929년 3-12;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1-7)』, 『朝鮮』 1933년 2-8.)나 이토 켄로(伊藤憲郎)의 기록물(『朝鮮性慾犯罪判決集』, 秀美堂印刷所, 1931.)이나 에세이(『朝鮮의犯罪』, 『朝鮮及滿洲』 224, 1926. 7; 『朝鮮犯罪漫筆』, 『朝鮮及滿洲』 262, 1929. 9; 『朝鮮の犯罪漫談』, 『朝鮮及

31) 김정실, 〈本夫殺害의 社會的 考察〉(1), 『동아일보』, 1933.12.9., 6면.

滿洲』 263, 1929. 10.)를 통해 전문화되고 전면화되었다.

조선의 여성범죄는 근대 범죄학 형성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롬브로 조(Cesare Lombroso)와 페리(Enrico Ferri)의 이론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일본 범죄학의 영향과 일본 범죄 통계와의 비교 속에서 의미화되었다. 조선적 풍습의 야만성을 강조하기 위한 쿠도의 연구는 말할 것도 없이, 성욕관계로 발생한 각종 범죄 관련 판결을 기록하고자 한 기록물로서, 조선 특유의 풍습을 드러내는 것에 주력했으며 사법과 경찰 관계자에게 한하여 제한적으로 소개되었던 이토 켄로 편 의 『朝鮮性慾犯罪判決集』에서도 조선의 '성욕범죄'는 일본의 성욕범죄와의 비교 속에서 논의되었다. 고등법원 검사로서 여성범죄 관련 재판에 입회했던 그는 흥미롭게도 성별이 아니라 성욕에 주목해서 범죄에 대한 통계적 기록을 정리했는데, 가령 외설이나 간음이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 반면, 약취, 유괴 및 간통은 조선 쪽이, 낙태는 절대적으로 일본 쪽이 많다는 식으로 비교에 의한 기술을 남겼다.³²⁾

그간 주의 깊게 짚어지지 않았지만, 범죄학의 소개는 성과학의 일부로서 성과학 소개와 증첩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도착』(Sexual Iversion)을 시작으로 『성 심리학 연구』(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전7권, 1897~1928)를 출판하면서 성 행동과 성 심리에 대한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헤이블록 엘리스(Havelock Ellis)가 『현대과학전집』 시리즈의 하나로 『범죄자』(Criminal, 1891)를 출판한 바 있음을 새삼 환기하지 않더라도,³³⁾ 일본 범죄학의 소개는 하부토 에이지(羽太銳治)와 사와다 준지로(沢田順次郎)의 성학 연구 영향 속에 놓여 있었다. 『朝鮮性慾

32) 伊藤憲郎 編, 『朝鮮性慾犯罪判決集』, 秀美堂印刷所, 1931, 2面.

33) 구자현·황상익, 『엘리스(Havelock Ellis)의 성심리학 연구』, 『의사학』 제5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1996, 24쪽.

『犯罪判決集』에서 이토 켄로는 서문을 대신한 소개의 글을 통해, 성욕범죄가 간통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설, 간음, 타태(墮胎), 약취, 유괴를 직접적인 죄로 하는 이외에, 상해, 살인, 공갈, 협박, 불법체포, 사채유기, 가택침입, 방화, 과실치사, 범인 장닉(藏匿), 절도, 사기 등 간접죄까지 포함한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성욕범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바 있다. 대체로 범죄 이면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는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언급된 범죄를 범주화하는 주요 분류 기준을 여성이 아니라 성욕으로 채택함으로써,³⁴⁾ 『朝鮮性慾犯罪判決集』가 성을 둘러싸고 폭력과 범죄의 경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성과학”을 연구하려면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하는지, 성에 관한 잡지 발행소를 가르쳐 달라는 독자의 요청에, 『동아일보』 기자는 “성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성학의 대가로 불리는 헤이블록 엘리스의 제 저작을 읽을 것을 권한다.³⁵⁾ 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해야 할³⁶⁾ 성학은 1930년대 전후 식민지 조선에서 낯선 학문이 아니었다.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사와다 준지로나 하부토 에이지가 성학

34) 伊藤憲郎 編, 『性慾と犯罪(序に代へて)』, 『朝鮮性慾犯罪判決集』, 秀美堂印刷所, 1931, 1面.

35) 의학, 민속학, 사회학, 문학 기타 각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의 심리학 연구』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 관련하여 성학 관련 잡지가 동경 등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여 전한다. <東亞살롱>, 『동아일보』, 1935.5.1.

36)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정상과 비정상 혹은 일탈 관념의 확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위생학의 방법론으로 차용된 인구통계학이 인간 행동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이 통계적 규칙성을 띠고 반복된다는 점이 관찰되었고, 그 결과 정상과 표준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념을 수반한 인간 행동의 규칙성이 자살, 범죄, 방탕, 정신이상, 매춘, 질병 등과 같이 일탈행위와의 연관성 아래서 인지되기 시작했다. 한민주, 『불온의 등록자들: 근대의 통계학, 사회위생학, 그리고 문학의 정치성』, 『한국문화연구』 제46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4, 271-277쪽.

대가로 소개되었고, 『處女及妻の性的生活』, 『避妊과 産兒制限法の 研究』나 『任意로妊娠케하는法』와 같은 출간물이 신문 광고를 통해 소개되었다.³⁷⁾ 출간된 이후 10여 년간 스테디셀러였던 사와다 준지로의 『변태성욕론』을 비롯하여, 헤이블록 앨리스의 『성 심리학 연구』를 당대 지식인들의 독서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³⁸⁾

식민지기 조선에 성욕학 혹은 성과학의 이름으로 소개되었던 성학(sexology)은³⁹⁾ 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과 관계에 대한 인식적 전환을

37) 1920년대 초부터 광고를 통해 소개되었던 사와다 준지로의 책은 조선에서 적지 않은 판매부수를 기록했고, 그로 인한 성학의 유행은 1927년 조선에 『변태심리』라는 잡지의 발간을 이끌기도 했다.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21-23쪽.

38) “1. 生理的 事實로 인한 自然的 知識은 말할 것 없고, 그 밖에 다소나마 學理的으로 具體的 知識을 얻게 된 것은 東京서 (20세 전후) 性에 관한 書籍을 閱讀한 때부터 이었습니다. 坊間에 流布하는 雜種性書를 5, 6권 읽었고 雜誌로는 『變態性慾』이란 것을 連讀하였으며 앨리스의 性學全書 一部分을 涉獵하였습니다. 坊間의 雜著는 煽情的 筆法을 相伴한 것이 많으므로 中止하고 醫學專門書類를 수 권 읽어 보았는데 有益함이 많았습니다. 2. 中等程度學校에서 上級生에 한하여 純科學的, 生物學的 見地에서의 性教育을 實際로 課함이 좋을 듯 합니다./ 思春期の 子女를 둔 家庭에서는 그 父母되는 이가 適當한 敎導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라면 먼저 우리 朝鮮 사람의 性에 대한 觀念—그 過大한 羞恥感, 도에 넘치는 神秘化的 傾向, 타부시하는 態度 등등을 打破할 必要가 있겠습니까./ 性教育에 있어서 한 가지 특히 高調할 것은 手淫의 惡弊害입니다. 獨逸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崇實專門 梁柱東, 羞恥感의 打破) / “1. 저는 外國 어떤 病院에서 일을 할 적에 틈틈이 醫師의 『性學』을 뒤져보고 性에 대한 事實을 좀 짐작하였습니다. 지금도 性에 대한 經驗家의 書籍을 두근두근 읽습니다. /2. 性教育은 科學的으로 하야겠습니까. 僞善 우리에게는 性教育書籍이 急합니다. (新生社 柳滄基, 性教育 書籍이 必要)(性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性知識·性教育·男女交際), 『동광』 28호, 1931, 37-8쪽.)

39) 조선에서 성학에 대한 지식인 남성들의 관심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1920년대 이후로 뚜렷해진다. 여성의 사회적 등장과 이로 인해 표면화된 변화와 갈등이 뚜렷해지자 지식인 남성들은 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이러한 ‘여성/신여성’의 행동과 섹슈얼리티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성과학’ 담론과 여성의 성(Sexuality)』, 『여성건강』 제2권 제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115-116쪽;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신여성』과 『별건곤』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서 의미를 가지며, 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로서 소개되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자리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현재에는 사이버 과학으로 취급되며 당시에 '성욕'에 대한 논의로만 받아들였던 성학에는 학문적 오류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초기부터 내내 성학 관련 서적들은 추잡한 음란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⁴⁰⁾ 그럼에도 성욕학으로 소개된 지식 저작물들은 여성범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조선에서의 여성과 성 관념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⁴¹⁾ 성학은 사회에서 남녀에게 분할적으로 할당된 성역할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차이를 위계로 받아들이면서 남녀의 차이를 남녀의 위계로 이해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을 여성의 부정적 특질과 열등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방식이 힘을 얻었고, 이러한 지식에 기반한 성교육을 통해 폭넓은 담론적 영향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성학은 유교적 관습과 규범이 힘을 잃어가는 근대사회에서 새로운 인식체계로서 여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재단하고 재구성하는 권력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9호, 한민족문화학회, 2009, 415-417쪽.

40) 구자현·황상익, 『엘리스(Havelock Ellis)의 성심리학 연구』, 『의사학』 제5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1996, 21-30쪽. 사실 이러한 반응이 조선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에서 헤이블록 엘리스의 첫 출판물인 『성도착』이 출판되었을 때 추잡한 책의 출판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성도착』은 꽤 오랫동안 부분적으로 금서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성 심리학 연구』는 의과대학 교재로 추천받기에 이른다. 성 문제를 과학으로 이해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성 심리학이 의학의 '새로운 분과'로 취급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41) 성과 생식의 분리, 성애의 인정, 성욕과 모성 기능에 의거한 여성관, 피임과 낙태, 출산장려 및 조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던 성학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성학으로서의 성격 즉 국민을 재생산하는 여성의 역할에 관심을 둔 '여성의 국민화' 담론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채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규율화화 역할을 맡았다고 해야 한다. 김연숙,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성과학 담론: 임신·출산 논의의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11호,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7, 46쪽.

식민지 조선에서 주목할 만한 경향성을 띠었던 본부살해 사건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집중했던 구도 다케키의 작업이 제국 일본을 경유해서 번역 소개된 성학과 범죄학 연구에 기반하고 있었던 점은 그간 집중적으로 짚어지지 않았다. 성학이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근대적 이해와의 연관 속에서, 본부살해로 대표되는 범죄학이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성학과 범죄학이 분리되어 분할적으로 소개된 사정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해야 한다. 범죄학을 둘러싼 이러한 취사 선택적 소개는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성을 근간으로 한 인간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 자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선에서 성학에 대한 소개로서 이해되는 과정에서, 성학이 여성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범죄학 성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적 누락은 성학-범죄학-여성범죄-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영향 관계에 대한 인식적 누락을 가져왔다고 해야 한다. 『犯罪研究』(1916)를 출간하고 잡지 『近代犯罪學』을 발간한 하부토 에이지와 사와다 준지로의 범죄학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성학으로 소개되면서 가려지거나 덜 주목받았던 범죄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범죄학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된 성학의 면모까지를 재인식할 수 있게 된다.⁴²⁾

42) 식민지 조선에 소개된 성과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으로 구분된다. 위생담론의 차원으로, 신체에 대한 의학적 이해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으로 질환적 신체에 대한 인식 전환의 면모를 보여주는 차원으로, 제국의 식민 지배 원리의 유포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개별적 타당성을 인정한 채로, 보다 근본에서 섹슈얼리티를 통한 사회적 구성이라는 인식 전환적 과정으로 이해할 때, 성학과 범죄학 그리고 여성범죄학의 상관성을 포함하여 지엽적이고 부수적으로 보였던 논의들의 총괄적 맵핑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성과학' 담론과

4. 성자식의 수립과 여성범죄의 구성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여성의 ‘의학적’ 증상에 대한 논의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그 내용들은 의료적 관점에서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으로 표현되어야 더 적합할 것들이었다. 병적 자질의 진단명은, ‘신경쇠약’⁴³⁾ ‘신경과민’ ‘소화불량’ ‘류머티즘’ ‘히스테리’로, 증상은 두통, 근육통, 허약, 우울증, 생리불순, 소화불량 등으로 불렸는데, 대체로 지속적 휴식이 필요한 일반적인 쇠약의 다른 이름들이었다. 근대 이후로 결혼이 점차 ‘성적·경제적 관계’가 되면서 결혼 관계 안에서 중상류층 여성이 재정적 원조를 받기 위해 성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재생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이 만들어낸 증상이었다.⁴⁴⁾

대체로 의사들은 히스테리를 증상이 있는 실제적인 질병, 사실상 자궁의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관련 저작물들이 소개되던 1920년

여성의 성(sexuality)’, 『여성건강』 제2권 제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97-124쪽; 김연숙,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성과학 담론: 임신·출산 논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11호,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7, 45-59쪽;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49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312쪽; 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에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문화』 제22호, 문화사학회, 2011, 29-52쪽;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43) 1869년 신경과 전문의 조지 밀러 비어드(George Miller Beard)에 의해 처음 진단명으로 사용된 질병이었던 신경쇠약은 이후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보다 주목받는 진단명이 되었다. 최은경·이영아, 『신문 상담란 “지상 병원”을 중심으로 본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신체 인식과 의학 지식 수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15, 247쪽.

44) 19세기 후반 미국의 중상류층 여성에게 등장했던 이러한 경향을 두고 『200년 동안의 거짓말 For her own good』의 저자들은 그것이 특정한 계급의 여성들과 관련된 것임을 간파해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디어드러 잉글리시, 『200년 동안의 거짓말』, 강세영·신영희·임세희 옮김, 푸른길, 2017, 158-161쪽.

대 초반을 지나면서 성적 욕망은 의사들에 의해 히스테리와 같은 생식기로서의 육체를 넘어서는 증상 즉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증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재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섹슈얼리티의 영역 즉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말초적 자극을 유발하고자 하는 외설적 음란 취미와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합의되고 있었다.

1920년대 초반의 성욕에 대한 논의와 달리, 히스테리는 더 이상 자궁이 있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⁴⁵⁾ 정신적인 질

45) 가령,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 그 차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 『男子는 女子보다 優越한 肉體的 及 智力的 또는 自由로운 社會的 地位의 所有에 依하여 容易히 그 性慾의 滿足을 얻으며 또는 적어도 그 全力을 要하는 生涯의 事業에 依하여 滿足을 얻지마는 上流階級의 女子들의 그러한 길은 全然히 閉塞하였다. 이는 意識하고 意識하지 아니함에 不拘하고 自己自身 及 世界) 對한 不滿)의 原因이 되고 病的 冥想의 原因이 된다. 自慰가 伴隨하고 또는 伴隨치안는 宗教的 狂熱은 만흔 神經的 疾患을 誘發하여 結局 히스테리-또는 發狂으로 終幕을 閉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二十五歲로부터 三十五歲까지의 사이에서 未婚女子에 發狂者의 數가 가장 만흔 事實은 이에 依하여 說明할 수가 있다.(〈性的存在와 現代婦人(五)〉, 『조선일보』, 1924.1.14., 1면.) (나) 『히스테리』란 두말할 것도 업시 감각(感覺)이나 감정 또는 성욕의 고장이 생겨서 한가지의 정신적 신경병(精神的神經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자와 그 박계 사람들의 관념(觀念)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 병의 소질은 대개는 유전하는 것인데 특히 어머니에게서부터 유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박계 심신이 너무 피곤하도록 일을 하거나 음식물을 불규칙하게 먹고 겹해서 운동이 부족하거나 중병 후에 빈혈(貧血) 쇠약(衰弱) 중독(中毒) 혈액병(血液病) 가튼 것이 이 병을 자어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생식기병으로부터 반사적(反射的)으로 오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식기병과 『히스테리』의 관계를 너무 과중하게 생각하여서 이 병은 전연히 여자의 생식기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인만치 오늘날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녀치는 분이 잇스나 그러나 생식기병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요 생식기병이 잇기 때문에 정신을 괴롭게 굴고 그 때문에 본 병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간접관계라고 할 수가 잇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테리』란 병이 여자에게만 잇느냐하면 그러치는 안습니다. 남자에게도 잇기는 한데 대단히 드물게 잇슴으로 속칭 녀자의 병이라고도 하며 어린 사람이나 늙은이에게는 적은 법이요, 소년이나 중년에게 만해서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지 대단히 만흔 병입니다.(〈내외

환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남편 살해 사건을 성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히스테리 발작으로 바라보는 해석도 있었다.⁴⁶⁾ 남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윤리나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다.⁴⁷⁾ 의학박사 정석태의 글 『성욕의 생리와 심리-남녀 양성의 성욕고』나 의학박사 박창훈의 『특히 주의할 여성과 금욕 생활』 등의 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성적 욕망은 곧바로 질병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때 질병은 육체적 질병만을 가리키지 않았다. 성적 욕망은 정신병과 자살 그리고 신경쇠약과 같은 심리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 속에서 논의되고 있었다.⁴⁸⁾ 히스테리를 통해 가시화된 여성의 성적 욕망은 재생산을 위한 여성 육체를 통해 여성을 설명하는 산부인과학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 여성의 성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신체로만 환원되지 않는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범죄학과 중첩된 자리에서 성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던 것은 남성의 욕망에 대한 젠더적 인준의 성격과 함께 외면할 수 없는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이해와 통제, 즉 규율화를 요청하는 사정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近來 우리 司誨에서 頻發하게 되는 本夫殺害의 事件은 所謂 夫婦間의 性格이 根本的으로 相異한 것, 또는 一時的 意見衝突에 原因한 것도 全然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 中에서도 가장 만흔 것은 大概 女子는 年齡上으로 나 身體上으로나 完全히 成熟하였음도 不拘하고 男子는 年齡上 身體上으

생활을 워만히 하는 방법(二), 『조선일보』, 1929.5.10., 3면.)

46) 〈熟睡中の 南便을 利鎌으로 亂刺重傷〉, 『동아일보』, 1933.10.7.

47) 양재하, 〈世界各國의 離婚法制와 朝鮮離婚法の 過去 現在 及 將來(一)〉, 『동아일보』, 1933.11.3.

48) 정석태, 〈性慾의 生理와 心理-男女兩性の 性慾苦〉, 『별건곤』 제19호, 1929.

로 女子보담 훨씬 어리기 때문에 紫煙히 性的 不滿 등으로 因하여 不知中 罪惡을 犯行하게 되고 혹은 女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性行爲에 대한 一種의 恐怖로 因하여 殘忍한 罪惡을 犯하게 된다는 事實도 가릴 수 없는 事實이다.⁴⁹⁾

自家犯火나 本夫殺害와 같은 殘惡한 犯罪는 미워할 것임이 勿論이나 이를 미워하고 懲治함으로써만 能事 畢矣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저같이 極惡한 犯罪를 敢行하여 社會의 表面에 露出된 者의 數갯만도 相當히 만코 또 나날이 늘어가는 形便이지만 그들만치 大膽하지 못하고 그들만치 殘忍하지 못한 까닭으로만 더 큰 不滿과 더 큰 고통도 참고 견디어 한창 피어나는 나이에 憂鬱과 苦悶 속에 心靈의 枯축을 自甘하는 者가 또한 얼마 만흔까 하는 것은 現下 早婚의 盛行을 目睹하는 우리의 想像키 어렵지 않은 일이다. 設使 放火나 殺人 같은 大罪는 犯치 안는다 할지라도 早婚의 不滿과 苦痛에 因한 少婦出奔의 消息이 귀 아프게 頻頻한 것을 보아서 半 남아 짐작할 일이 아닌가. 이에 그 裏面에 儼存한 不滿과 苦痛의 原因을 除去하기에 相當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⁵⁰⁾

이렇게 보았을 때, 조혼과 본부살해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논지 이면에서 새롭게 읽어내야 하는 것은, 히스테리와 우울 증상에 관한 증상층 여성의 성적 불만에 대한 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조혼에 의한 히스테리와 우울로 설명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조선의 여성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고찰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여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는 인식적 토대가 되었고,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1933년 『신여성』에는 부인과 의사들이 성문제를 논의한 좌담회가 실

49) 〈早婚의 弊害〉, 『동아일보』, 1936.8.16., 4면.

50) 〈朝鮮女子의 犯罪와 早婚〉, 『동아일보』, 1937.7.10., 3면.

린다.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⁵¹⁾ 신필호(신필호의원)를 포함하여 의사 허신(허신의원)과 윤태권(제대부속의원) 그리고 변호사 양윤식이 참석하여 <처녀감별법> <임신과 여성> <여성의 자독(自瀆)> <낙태와 법률> <정조와 위자료> <산아제한과 피임> 등을 주제로 당대 여성의 성문제를 논의하였다. 의학상의 처녀 구별이나 여성의 자위, 낙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 차원의 무지를 바로잡는 동시에 실질적 피임법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이 좌담회에서 무엇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의학적 지식을 논의하는 자리에 변호사가 배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 양윤식은 좌담회에서 강간과 임신의 관계, 강간에 의한 임신과 낙태의 허용 문제 등 성문제라기보다 여성 범죄 문제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⁵²⁾ 이러한 방식을 두고, 의학 지식의 빈틈을 법 지식이 채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완되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에 대한 규정들의 촘촘한 형성이 좌담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물론 아니다. 1930년대 전후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의료 전문인들이 소개한 여성에 대한 지식과 세세한 생활지침들이 성에 기초한 여성관을 세밀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가령, 산부인과 의사 신필호는 대하증, 임질, 자궁내막염, 임신중독, 불임 등 여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자궁병과 임신 출산을 둘러싼 신체 변화나 주의사항 등의 전문적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했다.⁵³⁾ 외과 산부인과의원 원장 박용준은 분만기전의 최종 단계에서 시작해서 임신과 분만으로

51) 신규환·박윤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역사공간, 2015, 297-304쪽.

52) <性問題를 中心으로 한 第一回 婦人科醫師座談會>, 『신여성』 제59호, 1933, 16-26쪽.

53) 신필호, <봄철에 만흔 부인병에 대하여>(1)-(10), 『조선일보』, 1929.3.1.~20., 3면.

변화된 생식기의 창상 치료나 회복에 이르는 시기인 산욕기에 관한 각종 지식을 소개하고 산후 생기기 쉬운 감염이나 병증 등 주의해야 할 위험을 환기했다.⁵⁴⁾ 『삼천리』에 실린 산아제한론이 불러일으킨 논란에 “과학의 정보”로서의 성학적 설명을 덧붙이고자 했던 의학박사 정석태는 맬서스의 논의에 기반한 세계적인 인류 증가에 대한 우려와 인류자손의 본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우생학적 입장에서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활난과 비위생적 생활환경으로 영아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출산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산아제한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신 과정에 대한 생리학적 설명이나 월경 주기와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생식에 관한 생리학적 설명을 산아제한법 실천을 위한 예비지식으로 제안하였고 실제적 방법론을 소개하기도 했다.⁵⁵⁾ 명성이 높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제공한 지식들은 여성의 생식기 관련 증상이나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정신적 증상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경쇠약, 월경 불순, 대하증과 같은 증상이나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임질과 매독 같은 질환에 대한 신문지상의 의학 지식 소개와 상담이 많았던 당대의 성지식 관련 풍경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⁵⁶⁾

성학이 성생활에서 변태성욕과 피임법에 이르기까지 성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점을 환기하자면, 산부인과 의사와 변호

54) 박용준, 〈산후에 생기는 산부의 두려운 증세〉(1)-(3), 『조선일보』, 1932.3.27.~30.; 〈산후에 생기는 산부의 두려운 증세〉(속)(1)-(2), 『조선일보』, 1932.4.1.~2.

55) 정석태, 〈醫學上으로 본 産兒制限 論考〉(1)-(15), 『조선일보』, 1930.5.28.~6.14.

56) 최은경·이영아, 「신문 상담란 “지상 병원”을 중심으로 본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신체 인식과 의학 지식 수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15, 245-246쪽.

사가 참석한 성문제에 대한 논의는 의학적 지식의 구성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한다. 말하자면, 성학은 대표 저자의 특정한 저작물과 그것을 통해 소개된 지식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프로이트를 포함한 독일 학자들(Iwan Bloch, Hermann Rohleder, Magnus Hirschfeld)의 저작물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영향을 확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환기해보더라도, 성학의 형성을 의학 중심의 전문적 연구 영역 수립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성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구체화되었던 일본의 성학 운동이 그러했듯, 조선에 소개된 성학은 특정한 저술 이상의 운동성과 대중성을 띠고 있었다.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에 전해진 유럽 성학의 목표는 성을 학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즉 성에 대한 학(wissenschaft)의 수립이었다. 성욕을 남성의 성적 유희라 생각하기 쉬우며 그런 이유로 성욕을 곧바로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는데, 성학은 이러한 오해에 맞서 성욕이 인류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환기하여 성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다.⁵⁷⁾ ‘Sexualwissenschaft(성학)’라는 개념이 성 관련 질병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던 의사로부터 연원했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 우선적으로는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성을 과학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시작되었지만, 성학은 일본을 통과하면서 분과학문적 연구대상이 되기보다 일상 문화 차원을 지배하는 대중화된 상식으로서 자리잡아갔다. 의학·정신분석·심리학·범죄학과 접속한 자리에 놓인 채로, 성학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 속에서 사회의 일반 상식을 구성해갔다.⁵⁸⁾ 이런 까닭에 성

57) 〈내외 생활을 원만히 하는 방법〉(3)-(4), 『조선일보』, 1929.5.11.~12.

58) 『性』 『性研究』 『性慾と人生』 등의 잡지를 통해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를

을 중심으로 한 인식 재편은 성교육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⁵⁹⁾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을 성에 두고 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학문 영역과 일상 현실 양자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방식 또한 인문적 사유와 과학적 분석이라는 양자의 방식이 함께 추구되었다. 요컨대, 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이해의 인식이 구축되는 이 과정 전체가 말하자면 성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지상 병원”(『동아일보』) “가정 의학”(『조선일보』) “위생 문답”(『조선중앙일보』)과 같이 신문지상에서 이루어진 의학 지식 소개와 상담 코너는 식민지기 대표적인 의학 지식 전달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성

포함한 성 관련 주요 저술들을 소개하는 한편, 성 관련 경험을 보고하거나 서사 형식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그 지식의 대중적 소개 양자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일본의 양심으로 이름 높았던 생물학자 야마모토 켄지(山本直治)는 1925년 여성을 위한 피임법 관련 대중적 지식을 비전문가와 일반인을 위한 잡지에 실은 후, 농민운동에 참여하였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의 동료이자 교토대학 의학부의 야슈다 도쿠타로는 프로이트의 주요 저작들 일부를 일본어로 옮기면서 성학과 관계 맺게 된다. 성학 대가로 알려진 사와다 준지로의 아내 사와다 케이코에 의해 가정과 사회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유럽의 정신분석과 심리학이 ‘비정상’적 성과 ‘변태적’ 성, 매매춘, 성병 등과의 관련 속에서 소개되었다. Sabine Frühstück, *Colonizing Se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83-106.

59) 가령, “대테 인류라는 것보다 동물(動物)을 못지않고 성욕에 대하여는 평면(平面) 이상의 생명을 가졌다 한다. 말하자면 가장 높고 가장 큰 욕망이 모다 이 덩에 있다고 적라라하게 말하면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 생식덕 본능(生殖的 本能) 자체 생명 연장(自體 生命 延長) 욕망은 오로지 이 성욕을 충동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식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천호당의원장 이형호, 〈性教育에 대하여(三)〉, 『조선일보』, 1929.4.19.)와 같은 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은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김필레의 『성교육』을 포함하여, 『처녀의 비밀론』(1936), 『여자육체변화개론』(1936)과 같은 성교육 관련 서적이 소개되었다.(김성연, 『식민지 시기 기독교와 의학 지식 형성』,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제중원 130년과 근대의학』, 역사공간, 2015, 237쪽.)

제국대학 의학부,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진료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의학 지식이 소개되었고 상담이 이루어졌다.⁶⁰⁾ 학술적인 논문에서 비전문가를 위한 칼럼 그리고 내러티브를 갖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통한 성학의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학을 일반화하거나 특정 영역을 두고 배타적인 의미에서의 ‘성욕’ 학으로 규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지어 어렵기까지 하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성학은 성을 규제하거나 억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의 정상성/비정상성에 대한 논의 쪽으로 진전되면서 두터운 논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력하는 분야가 서로 달랐고, 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따지자면, 성학의 저널적 소개는 성에 대한 지식의 몸피를 키우고, 폭넓은 대중에게 그 지식을 알리는 것을 공통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덧붙이자면, 산부인과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 유사 학문 영역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비전문가들의 역할이 결코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⁶¹⁾ 성에 대한 지식이 학문적 차원에서 소개되는 한편, 성에 관한 다양한 서사물들이 유포되면서 지

60) 최은경·이영아, 「신문 상담란 “지상 병원”을 중심으로 본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신체 인식과 의학 지식 수용」,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15, 235-243쪽. 성 관련한 지식 소개에 산부인과 의사와 피부 비뇨기과 의사가 참여하였다(경성제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허신, 경성제대 산부인과 의사 윤태권, 경성의전 피부과 의사 오원석, 세브라스의전 피부과 의사 이영준).

61) 일본의 경우, 성학 관련 잡지들은 당시 인쇄 매체 시장에서 활용되던 상업적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서 성학의 소개에 앞장섰다. 성학 관련 잡지들은 다른 성학 잡지들을 광고했으며, 저자들의 책을 소개했고, 심지어 칼럼을 제공하거나 의학 상담 코너에서 답변을 맡았던 의사들의 병원에 대한 광고를 싣기도 하는 방식으로 광고 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가령, 잡지 『변태심리』에서 잡지 『성연구』를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식으로, 상호적으로 광고 지면을 활용하는 근대 초기 인쇄 매체의 상업적 판매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었다. Sabine Frühstück, *Colonizing Se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110-112.

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령, 『별건곤』의 〈ERO SECTION에 로섹슨〉으로 대표되는 ‘에로’ 관련 서사들의 기능 또한 흥밋거리로서의 읽을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학의 대중화 그리고 범죄학과 중첩된 자리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었다고 해야 한다. 스스로 성병환자가 되어 아내에게 성병을 옮기는 방식으로 간부와 통정하는 아내에게 복수를 가하는 이야기나, 영아살해범이나 강간범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잔혹함을 전하는 이야기, 동성애자에게 가해진 혐기적인 형벌을 전하는 이야기 등 성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는 동성애, 간통, 영아 유기 및 살해, 강간 등 성 관련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한 이야기로, 성에 대한 소개가 범죄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며, 무엇보다 이 범주들은 대체로 여성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가리키고 있었다.⁶²⁾

5. 여성범죄의 성정치와 사회 통치술

본부살해에 대한 논의들은 새롭게 가시화된 여성의 성적 욕망, 무엇보다 가정 내부로 회수되지 않는 성적 욕망의 위험성과 그 여파에 대해 다각도로 다루면서도, 더 이상의 논거 없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적 욕망의 위험성이 입증된 것처럼 인식해버리는 측면이 있었다. 본부살해에 대한 논의는, 당대의 여성범죄론이 사회악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일에 집중했던 반면,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힘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자체에 대한 주목도는 낮았던 편임을 말해준다.

62) 비전실, 〈ERO SECTION에로섹슨〉, 『별건곤』 제66호, 1933, 29-33쪽.

1930년대 전후로 사회의 성애화와 함께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가 여성의 성을 조절하고 규율하는 원리로서 구축되고 있었음을 환기하자면,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적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성 부정성^{sex negativity}으로 대표되는 위협한 성이 혼인이 허용하는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 이외의 성 즉 혼인 관계 바깥의 섹슈얼리티를 의미한다고 할 때, 본부살해는 위협하지만 아직 가정 내부에 있는 성 즉 이성애를 지탱하는 혼인 관계 내부의 성인 동시에 가정을 위협하는 위협한 성을 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³⁾ 말하자면, 본부살해론은 우선 여성의 성이 혼인 관계를 경계로 ‘안전한/위험한’ 형태로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가 그것의 분할을 가능한 것처럼 담론화하고 있을 뿐임을 확인하게 하며, 무엇보다 여성의 성 자체가 근본에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역설하는 논의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욕망과 맺고 있는 양가적이고 중첩적인 관계에 주목할 때, 본부살해에 대한 본격적 재고 즉 여성범죄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을 둘러싼 형벌의 범주가 구성되는 과정은 한 시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성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야 한다.⁶⁴⁾ 여성범죄의 범주 규정을 어렵게 하는 범

63)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운 옮김, 현실문화, 2015, 298-303쪽.

64) 관련 법률 위반 사례로서 간통, 낙태(임신중지), 매매춘, 영아살해 등 오랫동안 여성 범죄로 범주화되었던 행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식민지기 낙태나 영유아의 살해나 유기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 간주되었다. 낙태아로 의심되는 태아의 시신을 발견하거나 낙태를 행한 여성을 검거하고 그녀의 부정을 폭로하는 기사, 여성을 임신 시킨 뒤 낙태를 종용하는 사건이나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검거한 기사 소개 등 낙태와 영아 유기는 신문 매체에서 대표적인 여성범죄 사건으로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나 영유아의 살해는 임신과 출산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가난이나 성폭력 등 피치 못 할 사정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나 영유아의 살해와 유기가 범법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낙태금지법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 효력이 거의 없는 법에 가까웠다. (이현숙, 『한국

죄 행위에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범죄나 법적 위반의 경계는 법의 차원에서만 확정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이나 인식과의 상관성 속에서 구축되고 재구축되는 영역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적 인식은 계몽적 언설이나 이론적 소개의 일방적 유포를 통해 형성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섹슈얼리티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게일 루빈의 지적처럼, 인간 행동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의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인간 행위의 산물이다. 섹슈얼리티는 이해관계로 얽힌 갈등과 정치적 술책이 넘쳐나며 갈등의 날카로운 경합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젠더적·섹슈얼리티적 인식 변화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일상 차원의 변화로서 구체화된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식민지기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에는 인쇄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수많은 '대중화된 정보'들과 교육 문건들, 교육과 감시를 위한 제도, 학교와 감옥, 교화소로 대표되는 시설물의 규율화 원리들, 범죄를 다루는 서사물들이 담론 유포의 매개이자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성을 통한 근대적 사회통치술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한다.

1920-30년에 걸쳐 신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해를 통해 위

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연세의사학』 제12권 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2009, 29-40쪽; 이영아,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낙태' 담론 및 실제 연구』, 『의사학』 제22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2013, 140-143쪽.) 더 나아가 이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성폭행(sexual violence)이나 성추행(sexual harassment)의 경우처럼 새롭게 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된 행위들도 있다.

협한 것으로서의 성(性)문제가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아가 민족(국가) 구성의 최소 단위인 개인의 삶을 작동하게 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원리가 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엮히는 방식으로 아동과 청년, 부모, 교육자, 전문가(의사) 즉 개인과 가정-학교-사회가 신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 그리고 감시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형성하면서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이 이루어졌다.⁶⁵⁾ 이 재구성 과정이 성지식을 토대로 한 성적 인간으로서의 여성관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이야말로 여성과 범죄의 범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야 한다.

근대적 사회 재편과 맞물린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의 젠더적 역할 배분이 자연화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민족과 사회에 대한 직분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한 젠더적 역할 배분론은 성을 상품화하는 근대적 자본화 경향 속에서 가정을 경계로 하는 섹슈얼리티의 배치를 불러왔다. 이른바 여성의 가정 중심화라는 성격이 구축되면서, 여성이 가정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적응하게 되는 과정에서 산업의 요청에 연동하는 노동력, 즉 사용하기 편한 노동자로 변모되어, 전형적으로 “순종 그리고/또는 돌봄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일이 없어지면

65) 소영현, 『조선적 ‘에로’의 발명-1920~30년대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섹슈얼리티의 재편을 둘러싼 1930년대 전후의 변화는 일면적으로 정리되기 어려우며, 일관되고 통일된 논의로 설명할 수 없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정상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적 대상의 선택을 둘러싼 섹슈얼리티의 정상성 논리를 통해 섹슈얼리티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며(조선의 경우에 한정하자면, 이에 대해서는 박차민정, 『조선퀴어』(현실문화, 2018)를 통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위험한 감정으로서의 ‘에로’의 범람과 규율로서의 성교육 담론을 중심으로 가시화된 섹슈얼리티 재편에 대한 논의 추적이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후자의 차원, 섹슈얼리티 재편의 경향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일상적 층위로 안착하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신이 “속한” 곳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마련되기 시작한다.⁶⁶⁾ 이러한 변화는 점진하는 근대화와 도시화 경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과학(의학)과 법 지식의 힘의 이름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널리 확보할 수 있었다.

66) 바버라 에런라이크·디어드러 잉글리시, 『200년 동안의 거짓말』, 강세영·신영희·임세희 옮김, 푸른길, 2017, 63-64쪽; 소영현, 「그림자 노동의 (재)발견: 자본과 노동의 성적 분할과 계급 위계」,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49-79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동광』, 『별건곤』, 『신여성』

2. 논문과 단행본

가와무라 구니미쓰, 『섹슈얼리티의 근대』, 손지연 옮김, 논형, 2013.

게일 루빈,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옮김, 현실문화, 2015.

구자현·황상익, 『엘리스(Havelock Ellis)의 성심리학 연구』, 『의사학』 제5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1996, 21-30쪽.

김연숙,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성과학 담론: 임신·출산 논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11호,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7, 45-59쪽.

김은아, 『1930년대의 살인사건 보도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9호, 2012, 291-316쪽.

김학이, 『성(性)을 만드는 사람들—마그누스 히르슈펠트와 베를린 성과학 연구소 1896-1933』, 『서양사론』 제103호, 한국서양사학회, 2009, 153-195쪽.

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김내성의 마인(魔人) 연구』, 『상허학보』 제40호, 상허학회, 2014, 81-112쪽.

메다 체스니 린드·리사 파스코, 『여성과 범죄』, 한민경·김세령·최재훈·홍세은 옮김, 박영사, 2021.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바버라 에런라이크·디어드러 잉글리시, 『200년 동안의 거짓말』, 강세영·신영희·임세희 옮김, 푸른길, 2017.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2호, 한국언론학회, 2001, 156-185쪽.

박지영, 『식민지 위생학자 이인규의 공중보건 활동과 연구』, 『의료사회사연구』 제4집, 의료역사연구회, 2019, 39-76쪽.

_____, 『제국의 생명력: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인구통계 연구, 1926~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박차민정, 『조선의 귀어』, 현실문화, 2018.

소영현, 『식민지기 조선 촌부의 비/가시화』, 『동방학지』 제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1-24쪽.

- _____, 『야만적 정열, 범죄의 과학』,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27-555쪽.
- _____, 『그림자 노동의 (재)발견: 자본과 노동의 성적 분할과 계급 위계』, 『아시아 여성연구』 제56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47-79쪽.
- _____, 『조선적 ‘에로’의 발명—1920~30년대 고백하는 섹슈얼리티와 성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259-293쪽.
- 신규환, 『20세기 한국 산과기술의 도입과 발전』, 『연세의사학』 제12권 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2009, 7-17쪽.
- 신규환·박운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역사공간, 2015.
- 심창교, 『건강한 성의 이해—성과학의 발달과 성의 이해 1』, 『산업보건』 제144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000, 57-61쪽.
- _____, 『건강한 성의 이해—성과학의 발달과 성의 이해 2』, 『산업보건』 제145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000, 44-48쪽.
- 에이드리언 리치,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이주혜 옮김, 바다출판사, 2020.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제중원 130년과 근대의학』, 역사공간, 2015.
-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성과학’ 담론과 여성의 성(sexuality)』, 『여성건강』 제2권 제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97-124쪽.
- 이영아,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낙태’ 담론 및 실제 연구』, 『의사학』 제22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13, 133-178쪽.
-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권, 한국여성사학회, 2008, 79-119쪽.
- 조앤 벨크넵, 『여성범죄론: 젠더, 범죄의 형사사법』, 윤옥경 외 옮김, Cengage Learning, 2009.
- 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문화』 제22호, 문화사학회, 2011, 29-52쪽.
-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연구』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2005, 43-87쪽.
- 최장락, 『음경과 근대 한국의 남성성: 1920~30년대 대중매체의 과학·의학 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최주환, 『일상화된 식민주의와 범죄의 서사』, 『어문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283-299쪽.
- 콜린 고든 외, 『푸코 효과』, 심성보 외 옮김, 난장, 2014.

- 쿠도 다케키, 『조선 특유의 범죄-남편 살해범에 대한 부인과학적 고찰』, 최재목·김정곤 옮김, 영남대학교출판부, 2016.
- 프란시스 하이덴슨, 『여성과 범죄』, 이영란 옮김, 나남출판, 1994.
- 피테르 스피렌부르크, 『살인의 역사』, 홍선영 옮김, 개마고원, 2011.
- 한남제·이준옥, 「한국의 여성범죄: 여성적인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8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2, 87-105쪽.
- 澤田順次郎, 『性慾犯罪』, 近代の結婚社, 1923.
- 伊藤憲郎 編 (川崎雲平), 『朝鮮性慾犯罪判決集』, 秀美堂印刷所, 1931.
- Frühstück, Sabine, *Colonizing Sex: sexology and social control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Abstract

Sexual Politics of Female Crime

– Sexology, Sexual Knowledge, and Female Crime in the Colonial Period

So, Young-Hyun(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knowledge about women around the 1930s that women's crimes were created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women sexually. Based on research on women's crimes centered on husbands murderers, I tried to expand my perspective to the point of omission in the discussion created by the way of understanding that women's crimes are limited to the discussion of husbands murder. In this paper, the understanding of women's crime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women's sexuality and sexual desire as a disease and a source of crime is 'made'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women by experts represented by doctors and lawyers. Specifically, it reminds us of the situation in which sexuality, which had been built in connection with the Department of Criminology, was introduced in the form of omitting the connection with the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I checked that the popularization of sexual knowledge that was spread through print media to reflect the 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sexology on Joseon socie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work of reconstructing the context of the changes that medical and legal work has made in the name of science and the effects it caused, that is, the cognitive transformation, women's crime is a mechanism for modern women's understanding to regulate and regulate women's sexuality and desires.

(Keywords: Women, Crime, Sexuality, Sexual Desire, Sexology, Sexual Knowledge, Class, Gender, Obstetrician)

논문투고일 2022년 5월 17일

논문심사일 2022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6일